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시편강해

모든 것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7:1-20)

본 시는 '그가'라는 대명사로 하나님을 14번 칭하고, 여호와가 8번 나온다. 세상은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찬양

시편 33:1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라고 했고, 시편 92:1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5:3은 찬양을 즐겁다고 합니다. 본시의 1절에는 이 3가지 형용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나 하시는 일 때문에 찬송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2. 가장 덜 중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찬양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우리까지도 돌보십니다. 별들을 창조하시고 보전하시는 하나님은 악하고 멸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3. 자기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찬양

시인은 7-9절에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기르신다는 새로운 이유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동물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짐승까지 돌보십니다.

4. 경건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시인은 육체적 힘보다 경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10-11절). 하나님은 말이나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5. 국가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 때문에 찬양

12절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국가를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양식으로 배불리셨습니다. 나라에 평안과 번영이 올 때 우리는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6. 이스라엘에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찬양

19-20절은 본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많은 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감사할 것은 말씀 계시나 기록된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인격적 관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영적생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많은 복으로 인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Praise the Lord because of everything He has done
(Psalm 147:1-20)

In Psalm 147, the word, 'He' appears 14 times, and 'the Lord,' 8 times. In other words, we are not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but God is.

1. Praise be to the Lord, because of His concern for His people

According to Psalm 33:1, "Singing is fitting for the upright." Psalm 92:1 says, "It is good to praise the Lord." And Psalm 135:3 writes, "Sing and praise the Lord, for it is pleasant." In Psalm 147:1, all three of these adjectives are combined.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praising Him is good, pleasant, and fitting.

2. Praise be to the Lord, because of His care for the least significant

The same God, who determines the number of stars and calls them out by name, takes care of us. Though we were weak and worthless, the God who has created the stars has stooped down to deliver us from the wicked. Therefore, we must praise God.

3. Praise be to the Lord, because of His provision for His creation

The psalmist praises the Lord anew, because He has created the animal world, given them food, and raised them (vv. 7-9). Although animals were not created in the image of God, nonetheless, God takes care of even them.

4. Praise be to the Lord, because of His delight over the godly

The psalmist emphasizes that we must fear God rather than physical power (vv. 10-11). The Lord delights in those who fear Him, and put their hope in His unfailing love, rather than in their own speech and power.

5. Praise be to the Lord, because of His blessing on the nation

In verse 12, the psalmist thinks again of Jerusalem. God has strengthened the bars of their gates, blessed the people, granted peace to their nation, and satisfied them with the finest of wheat. When our nation has peace and prosperity, we must give thanks and praise to God.

6. Praise be to the Lord, because of the revelation of Himself to Israel

The climax of this psalm comes in vv. 19-20. Since God had blessed His people with a revelation of His spoken and written word, they were able to enter into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Therefore, they needed to thank Him. The apostle Paul, in addressing Jewish superiority, said that they had been entrusted with the very words of God. The words of the Bible are the greatest blessing that we have ever received.

My beloved Christians!

The Spirit of God works through the Bible to lead us to spiritual life. In light of all these blessings from God,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praise God forever and ev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 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말씀과 기도작전... 연인원 21,647명 참가

6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 동안 계속되었던 말씀과 기도의 대장정 2010 홍해작전이 지난 25일 새벽, 승리를 감사하는 떡 잔치를 가졌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홍해작전을 은혜 중에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승전 감사예배로 드린다. 20일을 모두 출석하여 아가페타운 퍼즐을 완성한 성도들에게는 교구 간사실을 통하여 액자 선물을 드릴 예정이며 교회학교 백일장 · 그리기 대회 · 사행시 시상식도 갖는다.

(백일장 · 그리기 대회 · 사행시 4면 참조)

5년 3개월간의 시편 강해를 마치고
지난 주일 만나홀에서 축하 시간을 가지다.

맥추감사절

7월4일(주) – 주일예배 시간에 성찬식

7월 첫 주일이 되는 다음주일을 우리교회는 '맥추감사절' 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 보리 수확 곧 올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며, 유대민족들은 유월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십계명을 주신 날이며 오순절 성령강림의 날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다. 우리교회는 맥추감사절을 맞아 주일 Ⅰ,Ⅱ,Ⅲ부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준비하는 맥추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2010년 2학기 장학생 선발

7월15일(목)까지 장학회로 제출

서울교회 장학회는 2010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해당부서에서는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 추천서, 교회학교 추천서,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완비하여 7월15일(목)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특기자를 제외한 지난 학기 수혜자는 제외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0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7월18일(주)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는 7월18일(주) 교육1국(영 ·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을 시작으로 계속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쉼을 얻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 제	강 사
영 · 유아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예배를 드려요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요!	황광 목사
유년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해요	김안성 목사
초등부	7.18(주)~7.20(화)	서울교회	하나님과 동행해요	서명철 목사
중등부	7.26(월)~7.28(수)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비전	이종윤 목사, 장석남 목사. 박종민 목사
고등부	7.22(목)~7.2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이종윤 목사, 유문건 목사, 노현상 목사, 문정훈 목사
사랑부	7.2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종윤 목사, 노현상 목사, 문정훈 목사, 유문건 목사
대학부	7.21(수)~7.2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청년	이종윤 목사, 장석남 목사, 구희숙 목사
청년1부	8.12(목)~8.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 – 그 거룩한 갈망!	이종윤 목사, 정수길 목사, 유문건 목사, 문정훈 목사
청년2부	8.12(목)~8.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 – 하나님의 말씀	이종윤 목사, 박광일 목사
디아스포라	8.6(금)~8.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 – 예배의 기쁨	이종윤 목사, 임규현 목사
에바다	7.29(목)~7.31(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종윤 목사, 한상은 목사
신혼가정부	8.13(금)~8.14(토)	아가페타운	결혼, 가정 그리고 기쁨	조슈아 목사
영어예배부	7.30(금)~7.31(토)	아가페타운	하나님께 영광 – 하나님을 즐거워함	박노철 목사, 한상은 목사
장년부	10.2(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년부	

2010 장로교의 날

7월 10일(토) 오후2시 장충체육관

7월 10일(토)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장충체육관에서 2010 장로교의 날 행사가 열린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총4부에 걸쳐서 진행되며 1부 감사와 찬양, 2부 대회장 이종윤 목사가 개회사 및 개회선언, 3부 장로교 전통에 따른 연합과 일치 예배, 4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화합의 시간을 갖고 마치게 된다.

장로교의 날 행사에 앞서 이종윤 목사는 CBS TV "포커스 인"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장로교의 날에 대한 대담을 갖는데 본방송은 7월 7일(수) 오후 12시30분에, 재방송은 7월9일(금) 오후 12시30분, 7월10일(토) 오후 5시, 7월11일(주) 오후11시에 방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해 CBS 라디오 초대석에도 출연해 6월27일(주) 오후5시부터 6시까지 방송된다.

장로교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견인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 뜻 깊은 자리에 서울교회 교인들이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사의 주역이 되도록 초청한다.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

7월3일(토) 오전11시 8층 만나홀

제1,2 스데반회(회장: 최광성 집사, 송인권 집사)에서 주최하고 서울교회 70인 전도대가 협력하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 가 7월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30분까지 서울교회 8층 만나홀(801호)에서 열린다.

70세 이상의 서울교회 및 지역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 감사예배, 관현악단의 연주와 건강체조, 성경퀴즈, 효행상 시상 등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본 행사, 그리고 식사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회와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의 시간을 제공할 이번 사랑의 대잔치는 지역사회 복음화와 섬김의 기쁨,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1910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가 지난 22일(화) 오후 5시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그 막을 열었다.

이날 개회 예배의 설교를 맡은 한국교회 대표 원로 방지일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크게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는 일의 성과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부하심과 그의 정하신 뜻대로 순종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교 하셨다.

1910년 에딘버러 대회의 연합과 협력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이번 한국 대회 개회 행사에는 국내외 선교학자, 선교사, 선교기관 대표, 목회자, 신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1부 예배에 이어 이종윤 대표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서울 대회는 이광순 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폴 피어슨 박사(전 풀러신학교 세계선교대학원장)와 이종윤 목사님이 각각 기조 연설을 하였다. 폴 피어슨 박사는 '에딘버러 이후의 선교운동'을 주제로 선교운동의 역사와 현안과 경향들을 설명한 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서 복음 증거을 위해 대처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역사상 가장 다양한 국가와 인종이 참여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 선교운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놀라운 규모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종윤 목사님은 '케리그마 실천으로서의 선교'라는 주제의 기조 연설을 통해 "에딘버러대회 개최 100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서 기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세계선교의 책임과 중심지가 한국교회로 전이된 것이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에딘버러대회가 처음부터 교회 제도 및 교리 차이를 논외로 하고 전적으로 비기독교 세계를 향한 선교과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하며 "20세기 안디옥 선교 협력의 재현이었던 에딘버러대회 이후 선교개념이 사회, 정치적 의미로 변경됐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케리그마를 선포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선교를 통해 치뤄야 할 댓가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자기 희생으로 보여주신 주님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선교의 열매는 생명의 부활이 있듯이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날 주제 발표 이후 선교사 마포삼열 박사의 아들 사무엘 마펫 명예 대회장과 에티오피아 선교사 자녀 조나단 봉크 박사, 라틴아메리카미션 대표이며 옥호열 선교사 자녀인 옥찬필 박사, 아서 킨슬러 선교사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서울 대회에 이어 7월 5일까지 인천과 부산에서 이어지는 이번 대회가 오늘 한국교회 선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허숙 권사(편집부)

이미숭 집사 (13교구 간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14:14)

매년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건너는 홍해작전!

홍해작전이 시작되고 특별히 13교구에는 새로운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새벽4시, 아파트 각 동에는 하나 둘 불이 켜지고, 경비실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다락방식구들을 기다려주며, 미처 잠을 깨지 못한 식구들에게 휴대폰을 울려주기도 합니다.또 이어 교회 앞 신호등에는 마치 주일 예배 때와 같이 많은 교우들이 만나 서로 인사하니,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건너는 홍해가 어찌 두려웠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은, 13교구가 주력부대인 수요일 새벽 나이지리아와 싸우는 월드컵 축구 중계로 혹 빠지는 식구가 많을까 염려되어 교구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교구식구들이 주력자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였으므로, 승리의 기쁜 소식을 목사님 광고를 통해 들으니 이는 또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강사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은 매일 아침마다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만지셨습니다.

이제 퍼즐판의 아가페타운을 완성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 새 힘을 얻었으니 설사 우리 앞에 뜨거운 광야가 기다린다 해도 우리는 이길 것이며 그 옛날 미리암과 같이 기뻐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신 성령님, 입구에서 반겨주시던 목회자님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안준홍 집사 (14교구 간사)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홍해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홍해작전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5월 중순 '홍해작전'의 목사님 광고말씀을 통해 홍해를 전교인이 건널 수 있기를 바라는 준비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원 영통에서 이곳 14교구로 이사 온 지 3년 밖에 되질 않았지만 교구 간사라는 무거운 사명을 받은 만큼 교구 식구들을 둘러보는 신실한 종이 되길 소원합니다.

새벽이면 가가호호 서로 연락을 하여 같은 방향에 계시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하여 목발을 짚고 새벽을 깨우는 권사님들... 서로 모닝콜을 하며 한 자동차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해작전의 기도제목처럼 우리들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에 참여하는 서울교회 식구들이 다 되길 기도드립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신앙으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14교구 가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2010 단기선교

하나님이 명하시므로

이강인 집사
(11교구, 10기 단기선교 단장)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120년 전 그 때 하나님이 명하시므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땅 조선에 가야겠노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여 검은 땅 말라위를 가겠다고 한 명, 한 명 지원서를 낼 때마다 정말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선교를 위해 아껴 둔 휴가를 모아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저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결 쉬운 길을 갑니다. 언더우드는 고집스런 어둠 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땅에 뚝 떨어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말라위 지역의 2개 교도소와 지역마을에 파송되어 마칸디 초등학교 준공예배를 준비하고 의료및 이미용, 어린이 사역, 교도소 사역, 마을축호전도, 방역 등의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건물을 지어놓고 마침 우리가 가는 때에 맞춰 개교한다고 하니 이것 저것 가져다 주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이번 선교사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아프리카 말라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를 가지려고 합니다. 7월 4일, 11일, 18일, 25일에 8층에서 열리는 선교를 위한 바자에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자물품과 현지 기증물품(특히 악기 종류, 예를 들어 기타, 키보드, 음향 장비등)을 협조하실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 길을 오가는 중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풍토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고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 할 수 있도록 평화의 마음과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 별 찬 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태리에서 성악과 지휘를 전공한 유태왕선생의 지휘와 오자경 집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부원장)의 오르간 반주로 '여호와 우리 주여(이기경)', '내 주는 강한 성이요(M.Hayes)'등 세곡을 드리며 피아노는 조현정성도, 팀파니는 윤주일선생이 수고한다.

신앙강좌반 수료자 명단 - 다음 주 2학기 개강

신앙강좌1(총32명) : 김정희10, 김자경, 권순단, 이수자, 남상경, 김신애, 나옥녀, 이부자, 최화옥, 정연택, 박명석, 원명희, 윤정식, 이현숙, 정애신, 유춘자, 정봉금, 이재순, 채복순, 강윤희, 최명남, 이성직, 이상호2, 이덕빈, 강택근, 김규환, 배재송, 서귀용, 홍승전, 윤찬오, 김은태, 노제현

신앙강좌2부(총 84명) : 강원배, 강창숙, 고영숙, 곽숙, 권성열, 김경희15, 김난희, 김무선, 김미경(66.4.27), 김미선2, 김미성1, 김사라, 김상태, 김성수2, 김성환5, 김세용(59.11.23), 김수경1, 김숙자1, 김순덕, 김영수2, 김영주, 김영하(45.2.19), 김웅기, 김정숙3, 김지은2, 김진희(54.1.23), 김찬진, 김해수, 김현관, 김홍기3, 박광수, 박광옥, 박덕호, 박복순1, 박상운, 박은영1, 박인규1, 박정란, 박화실, 박희석, 백동금, 백명자(38.5.28), 서영숙, 서은석(60.2.13), 송행희, 신성균, 안성광, 안인호, 안준홍, 양귀식(74.8.19), 오가연, 오민세, 오세백, 유관모, 윤운, 이갑수, 이광배, 이명신, 이민숙(57.10.6), 이옥선(63.12.24), 이은희(64.5.3), 이인수2, 이종장, 이창희, 이태원, 이해순, 임영숙, 장호영, 전미애, 정철환, 조민자1, 조복자, 조소량, 조현희(62.12.18), 진영숙, 최미영(59.4.13), 최영경(64.2.13), 최정순, 최향숙, 하영숙, 한선현, 한춘홍, 황병석, 황정욱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8일(월) 2시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주최하는 WCC와 한국교회 학술세미나를 주관한다. 특히 패널토의를 인도하여 WCC와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언을 한다. 29일(화) 전서노회 목회자후보생 교회방문 시 특강을 한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사회를 소집한다. 7월2일(금) 한장총 장로교의 날 행사 준비위해 수도노회(합동측)와 서울강남노회(통합측) 임원 및 지도자 연석간담회를 갖는다.

■ 대통령 훈장: 송영재 집사(11교구) 동탑산업훈장

■ 수상: 고요한 성도(3교구, 고기성 성도 박분옥 집사 차녀) 제26회 동아국악콩쿠르 해금 일반부 금상

■ 류기찬 집사(4교구) 제1회 BIM FORUM 공개세미나, 6월28일(월) 오후2시 aT Center

■ **주간 식당 봉사**: 이삭 선교회(7.4) 도르가 전도회(7.11)

■ **금주의 식사** : 최차순 집사 백혜숙 권사 가정
이찬호 집사 최정순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 부	오전 9시
	Ⅱ 부	오전 11시 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오전 11시
	Ⅱ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홍해작전 백일장 · 그리기 · 사행시 수상자

<유치부>

그리기
· 최우수상 – 최윤
· 우 수 상 – 김희서
· 장 려 상 – 이형진, 윤주경

<유년부>

사 행 시
· 최우수상 – 김요한
· 우 수 상 – 남사라
· 장 려 상 – 김희진, 배현주

글 짓 기
· 최우수상 – 김민지
· 우 수 상 – 서윤재

그 리 기
· 최우수상 – 김세영
· 우 수 상 – 최의연
· 장 려 상 – 장하늘, 한서형

<초등부>

사 행 시
· 최우수상 – 김정곤
· 우 수 상 – 송민경
· 장 려 상 – 박혜나, 정현수

글 짓 기
· 최우수상 – 김은초
· 우 수 상 – 박혜나
· 장 려 상 – 오윤진, 오수민

그 리 기
· 최우수상 – 김수일
· 우 수 상 – 홍민기
· 장 려 상 – 최유리, 박혜민

최우수 – 원용범 집사 (4교구)
홍해를 갈라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해군 초계함 어뢰로 폭침 시켜놓고
작심하고 안했다고 우기는 무리들
전멸시켜 복음화된 통일 이루소서

우수 – 최정환 집사 (2교구)
홍해를 건너는 발걸음마다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듯
작심한 태신자를 생산해내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수 – 권장철 집사 (6교구)
홍색의 겉 옷도 벗기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해면 속 신포도주로 갈증을 풀도록 조롱 받으신 예수님
작정한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전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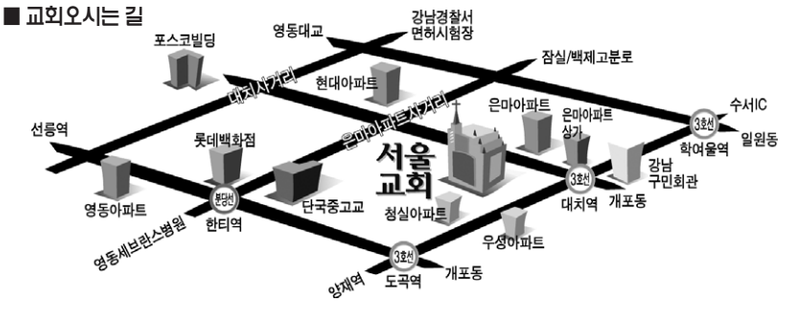
장년부 장려상 : 정현수 집사(12교구), 정원조 집사(12교구), 유은철 집사(5교구)

최우수–김요환 (유년부 새싹반)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땅으로 건넜어요
해님이 질퍽한 땅을 말렸을까?
작전을 애굽왕은 알았을까?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승리!

최우수–김정곤 (초등부 6)
홍해바다의 갈라짐을 보았나요? 어디에서 보았나요?
해오름 속에서도 석양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작심해봐요. 기도해요. 홍해작전에 참가하여 함께 건너요. 홍해를
전 성도, 온 국민이 함께하는 홍해작전에 참가해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7월 10일 장로교의 날 행사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